

# 남자 27m·여자 20m 높이서 짜릿한 낙하

알고 보면 더 재미 있는 세계수영대회

## ② 하이다이빙 경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6개 종목 중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하이다이빙 경기는 남자는 27m 높이, 여자는 20m 높이의 타워에서 자유 낙하해 3초 이내에 선수의 발로 수면에 닿아야 하는 경기다.

짜릿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연상시키는 하이다이빙은 압박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절벽 다이빙에서 유래했다. 실내에서 펼쳐지는 하이다이빙은 이번 대회에서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3년 국제수영연맹(FINA)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이빙과 별도의 종목인 하이 다이빙을 신설했다. 하이 다이빙은 남자 27m, 여자 20m 높이의 다이빙대에

2013년 다이빙과 별도로 도입

내달 22일부터 조선대서 경기

개리 헌터·스티븐 로뷰 금 유력

하이다이빙 경기는 TV 등을 통해 지켜왔다. 수영대회의 백미인 하이다이빙은 부다페스트의 랜드마크인 고풍스러운 외관의 국회의사당 앞 도나우 강변에서 열렸고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대회 개최 이후 헝가리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조직위는 고심 끝에 하이다이빙 경기장을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리 보이는 조선대 운동장으로 결정했다. 조선대 역시 분관을 배경으로 대회가 펼쳐져 특수가 기대된다.

하이다이빙 경기는 광주시 동구 조선대 축구장 임시풀에서 다음달 22일부터 사흘간 펼쳐진다. 경기장에는 27m 높이의 다이빙타워와 둘레 17m, 높이 6m의 경기풀 1개, 관람석 3027석이 들어선다. 전체 6개 종목 중 유일하게 한국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돼 하이다이빙 선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개리 헌터를 주목해야 한다. 개리 헌터(35)는 지난 2016·2017

FINA 하이다이빙월드컵과 2013·2015년에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석권한 남자 하이다이빙의 대표주자다. 미국의 스티븐 로뷰(34)도 2017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금메달과 2017 FINA 하이다이빙월드컵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선수로는 멕시코의 아드리아나 히메네즈와 호주 리아나 이프랜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드리아나 히메네즈(34)는 2017 제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은메달과 2017 FINA 하이다이빙월드컵 금메달을 획득했다. 리아나 이프랜드(27) 2017 제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금메달과 2017 FINA 하이다이빙월드컵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 실력파다. 역대 금메달 순위로는 미국 4개로 1위 영국과 멕시코가 각각 2개로 공동 2위다. 하이 다이빙 세계기록은 브라질 태생 스위스의 라조 살라가 보유한 58.8m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문화전당 국가기관으로 유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 광주 설립 ▲2020년도 국비 지원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조성사업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총괄조정, 5대 문화권 사업과 문화전당 활성화, 민간투자 유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도 개선 등 제반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현장을 방문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살펴봤다.

정택협의회에서 문체부는 광산길 확장사업 도로공사 추진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사항 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문체부 문화전당 활성화 정책협의회

국가기관·특별법 연장 등 건의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모색 등을 위한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택협의회에서 문체부는 광산길 확장사업 도로공사 추진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사항 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시내 빈집 6254호 실태조사 착수

등급 조사해 정비계획 수립

광주시는 현재 6254호(주택)로 추산되는 빈집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분석을 거쳐 현재 시내 빈집 규모를 6254호로 파악했다.

실태조사는 빈집 위치와 시설물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빈집의 주요

구조부 상태, 위생성 등을 조사하는 등급 실태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빈집 정비사업 등에 대한 소유자 의견도 듣는다.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축한 빈집 정보시스템에 입력, 빈집 관리에 활용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내 빈집 정비 계획도 수립한다.

광주시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자치구에 2회에 걸쳐 4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 5월에는 자치구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김형호 기자 khh@

## 문화·생태관광지 전남으로 수학여행 오세요

목포 초등교장단 연수대회 홍보

전남도는 14일까지 이틀간 목포실내체육관 등 목포시 일원에서 열리는 '한국 초등교장협의회 하계 연수대회'를 활용해 전국 초등학교 교장단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 활동을 펼친다.

초등교장협의회 연수대회는 13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초등학교 교장과 교장 임명 장학(연구)관, 교육 관계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식과 축하공연을 열었다. 14일에는 목포시내 우수 학교와 역사·문화체험 명소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목포실내체육관 입구에 '관광전남 홍보부스'를 설치해 연수대회에 참석한 초등학교 교장, 장학관 등 교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의 문화·해양·생태관광지임을 소개하는 '남도

교육여행' 홍보책자를 배부했다. 또 전남지역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활동 등 수학여행의 최적지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쟁력을 갖춘 서남해안 섬과 해수욕장, 캠핑장, 자연휴양림, 수목원, 편백숲길 및 여름축제 등을 담은 '여름 남도여행' 홍보책자와 전남 대표 관광지 음식을 소개하는 '오감만족' 지도, 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여름 코스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남도관광 여행 상품도 소개한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등 맞춤형 수학여행 추천코스를 담은 '남도교육여행' 홍보 책자를 지난 1월 전국 5000여개 학교에 배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13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부채를 들어보이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 전남도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비 1136억원 추가 확보

전남도가 해마다 삼삼 침수로 어려움을 겪는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비 국비 113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36개 신규 지구와 기본조사 28개 지구 가운데 전남이 각각 8개 지구와 5개 지구로 가장 많은 사업량을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50ha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신규 착수지구 8곳은 강진 풍동, 신안 감정, 장흥 삼산, 나주 중포, 담양 우치, 보성 칠동, 순천 원장, 영광 신월 지구다. 앞으로 주변 현황조사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게 된다. 공사 완료 시까지 597억원의 국비를 3년간 지원받는다.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된 완도 충도, 해남 황산, 담양 보성 안심, 나주 내기 5개 지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는 539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전남도는 광양 선소, 무안 중등포 등 28개 지구의 2019년 배수개선사업비 477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배수장·배수로·배수문 설치, 저지대 매립 등을 시행중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완성도 높은 시공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 농가 소득이 최대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세계수영대회 대비 생물테러 모의 훈련

광주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14일 오후 2시 남부대학교 시립 국제수영장 주차장에서 생물테러 대규모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 광산구보건소가 주관한다.

이번 훈련은 광주시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 광산경찰서, 광산소방서, 육군 503여단, 공군 제1전투비행단, 의료기관 등 11개 기관에서 9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드론을 이용해 수영대회 참여자와 관람객에게 탄저테러를 일으키는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진행한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훈련은 의심상황 발생에 따른 신고, 유관기관 상황전파, 초동조치팀 구성·출동, 기관합동 현장대응, 노출자 대피, 현장응급진료소 운영, 노출자 의료기관 이송, 테러범 검거 등 시나리오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실제 상황처럼 진행한다.

질병관리본부 현장지원본부 차장, 이동 실험실차장, 군 화생방 제독차장, 생물학 경찰차, 119구조 공작차, 다목적 제독차, 경찰 순찰차, 의료기관 급급차 등 장비도 동원된다.

광주시는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지난달 생물테러 장비를 점검했다. 광주 5개 자치구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개인보호장비 착용 시연 등 생물테러 대비 대응 교육을 했다. /김형호 기자 khh@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